

“도지합니다” 소방갑질. 알고 보니 D기업 때문?

D기업의 불법 후원금에 대해 어제 김 후보 측은 “임 모 회장과 젊은 시절 면식은 있는 사이다, 후보자는 당시 후원금 기부자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”고 해명했습니다.

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.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뉴스포털에는, 2008년 당시 김 지사가 D기업 임 모 회장을 가리켜 “감옥동기이자 선배이자 스승이다. 이 분이 안 계셨더라면 도지사는커녕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 모른다”라고 칭송한 사실이 지금도 버젓이 게재되어 있습니다.

김 후보의 동기이자 선배이자 스승인 임 모 회장의 후원내역을 보면 본인 스스로 2회에 걸쳐 천만원을 후원하였고, 임 회장 일가가 4,500만원을 후원하였으며, D기업 임직원들이 3천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됩니다.

이중 2,500만원은 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후원한 불법후원금이며, 한 직원은 친구의 이름까지 빌릴 정도로 압박을 받았고,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판결이 났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금 기부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한 김 후보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.

2011년 12월, 전 국민에게 김 후보의 실체를 알려 준 “도지합니다, 당신 누구요”, 일명 “김문순데” 사건이 발생합니다. 소방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던, 단순 갑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D기업이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.

김 후보에게 법정 최고한도액인 5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던 D기업 최 모 부회장의 병실에 김 후보가 찾아갔고, 위중환자는 구급차를 쓸 수 있다면서 그 자리에서 119에 전화한 것이 소방관 갑질 사건의 시작입니다. 그 자세한 과정이 당시 언론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.

이래도 후원자들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. 매번 후원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, 과연 믿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.

김 후보의 사적인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, 자산의 고액후원자에게 구급차를

사용할 수 있음을 알린다며 소방관에게 갑질한 김 후보의 행태는 국민 상식에 크게 어긋납니다. 지금이라도 D기업과 무슨 관계인지 명백히 해명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5월 21일

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
단장 강득구, 부단장 정준호·박관천